



독서모임 진행법

말하는 독서

저자 소개

김한주

책을 함께 읽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독서모임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10년 전 페이스북에서 본 “책 함께 읽어요”라는 문구를 계기로 첫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혜학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아카데미’ 그리고 여러 학교와 도서관에서 독서와 독서모임에 대한 가치를 나누며 활동해왔다.

현재는 독서모임에 도움이 되는 진행지 ‘생각실험 리딩가이드’를 만들고 있다. 독서모임진행자·기획자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초등학생도 스스로 독서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 지은 책으로는 『사피엔스 뜯어먹기』, 『생각의 지도 뜯어먹기』가 있다.

들어가기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모임에서 선정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참석하면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반 고흐’가 화가인 것 이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간체로 쓰여 있는데, 저는 편지글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적인 글을 굳이 제삼자인 내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읽기 시작한 책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고흐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 책을 읽을 즈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우적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고흐의 심정에 더 감정을 이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질적인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온갖 필수품이 내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또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파멸만 있는 듯 해서 넌더리가 난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신이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화가 반 고흐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영화, 책, 노래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큰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고흐가 직접 쓴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단한 삶과 치열한 생각이 담긴 편지를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도 궁금해졌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부터

감상법까지 상세하게 전했죠. 이런 서사는 미술에 문외한인 저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까지 이끌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그곳에 방문해 직접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습관’이 생겼습니다. 독서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그 안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부담 덕분에 저는 독서습관이 생겼습니다.

독서 사자성어 ‘마감독서’,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을 완독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또, ‘편식독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서모임을 하기 전에 저는 미술 관련 책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인 것도 몰랐고, 그의 무덤이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Auvers-sur-Oise)에 동생과 나란히 있다는 것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도 몰랐으니 말 다 했죠. 혼자 새로운 장르나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지만,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책을 읽어야 하는 독서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테오야,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네가 아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가끔이라도 내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니? 여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내게 보내다오. 경제적인 문제까지 마우베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지 않겠니? 그는 내게 그림에 관해 조언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다. 물론 그는 침대와 가구들을 사라면서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구나. 옷도 더 잘 챙겨 입고 너무 궁색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면서 말이다.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위 발췌문을 바탕으로 저는 독서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동생에게 크게 의지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수입이 없는 고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동생의 후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를 10년 동안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독서모임에서 함께 나눈 결과, 저는 참여자들과

책에 대해 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독서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혼자 책을 읽고 느끼는 것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독서모임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재미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독서도 좋지만, 함께하는 독서는 더 즐겁고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독서모임을 해 보신다면,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책은 ‘함께 읽는 즐거움’과 ‘독서모임의 유익함’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특히, 독서모임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다 읽은 후 3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독서와 독서모임의 차이점.

둘째, ‘독서모임 진행지’ 만드는 법.

셋째, 독서모임 진행 및 운영법.

이론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

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10년간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회사에서 독서모임을 만들고 진행해 왔습니다. 독서모임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저를 초대해 주었고, 참여자들도 독서모임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서,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 있는 다양한 발췌문과 질문을 읽다 보면, 저절로 “아! 이런 식으로 독서모임 하면 되는 거구나.”하고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이 4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 시작

2부 진행지

3부 진행법

4부 독서모임

제 바램은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독서모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 봐야지!”, “지금 하고 있는 독서모임에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소

비자'를 넘어,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제넘지만, 최선을 다해 독서모임에 대한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부 시작

1. 독서와 독서모임의 차이 ◦11
2. 독서모임을 이루는 사람들 ◦19
3. 독서모임을 살리는 책 선택의 기술 ◦25

2부 진행지

1. 토의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발췌법 ◦31

1-1. 문학에서 발췌하기 ◦32

- 동화에서 그림 발췌하기
- 문장 발췌하는 기준
- 동화에서 발췌하기
- 소설에서 발췌하기

1-2. 비문학에서 발췌하기 ◦45

- 비문학 발췌 예시

2. 참여자의 말문을 여는 질문 만들기 ◦51

2-1. 진행지 구성 알아보기 ◦59

- 모르는 단어와 개념은 미리 숙지하자
- 질문의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2-2. 동화로 질문 만들기 ◦66

- 질문은 한 진행지에 몇 개가 적당할까?

2-3. 소설과 비문학으로 질문 만들기 ◦72

- 소설 발췌와 질문 심화 연습
- 비문학 발췌와 질문 심화 연습

3부 진행법

1. 진행지로 슬기롭게 진행하기 ◦115

- 자유질문 진행
- 선택질문 진행

2. 말하는 독서 진행법 ◦121

- 독서모임에서 토론하지 않기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경청'의 자세
- 발언 시간 조절하기
- 참여자에게 패스권을
- 독서모임의 목적은 설득이 아닙니다.

4부 독서모임

1. 독서모임의 현재와 미래 ◦127

- 나와 독서모임을 할 사람이 있을까?
- 공공 차원의 노력 : 서울야외도서관과 힙독클럽
- 서울국제도서전의 예상치 못한 인기
- 연예인의 영향력 : 그들이 소개하면 책이 팔린다
- 독서라이프 : 따라 하고 싶은 셀럽의 삶

- 시대를 역행하는 독서 붐?
- 그래서, 독서모임 해도 되는가?

2. 독서모임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137

- 문해력 향상
- 소통과 리더십
- 강의, 출판, 콘텐츠 제작

맺음말

- 독서모임으로 삶의 변화를
- 그냥 시작하시라!

1부 시작

독서와 독서모임의 차이

독서는 보통 혼자 합니다. 하지만 독서모임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죠.

독서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음독, 묵독, 속독, 발췌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독(音讀)이란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뜻이고, 묵독(默讀)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음독을 했다면 현재는 주로 묵독으로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책 읽는 소리가 대문까지 들려야 공부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유럽에서도 성경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소리 내서 읽는 음독이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묵독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개인이 소리 없이 책을 읽는 건 은밀한 행위라고 여겨, 묵독은 ‘악마를 부르는 독서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독이 더 드물어졌습니다.

어쩌면 묵독은 경쟁에 특화된 독서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대학입시를 비롯한 시험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묵독은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경쟁,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습득했는지를 시험하는 데 최적화된 독서법 아닐까요?

혼자 읽고, 그 결과가 시험 성적이나 입학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제는 시험을 위한 읽기와 '독서'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음독은 혼자 읽기도 되지만, 여럿이 함께 읽기에도 적합한 방식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는 묵독도 괜찮지만, 감정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읽기'가 좋습니다.

이 함께 읽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모임입니다. '독서모임'은 2명 이상이 만나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독서모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미리 읽고 모이기, 책을 읽지 않고 모여서 읽기, 서로 책을 소개하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이 대상과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자 읽는 '독서'와 '독서모임'의 차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이제 독서모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이나 '효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굳이 '효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효능'에는 치유의 의미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에서는 언지 못하는 ‘치유’가 독서모임에서는 가능하기에 독서모임 ‘효능’이라고 칭해 봤습니다.

이 ‘독서모임 효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움, 유익함**, 그리고 **연대**입니다. 첫째, **독서모임의 즐거움**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동화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들쥐 프레드릭과 그 가족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로 작가 레오 리오니는 ‘칼 데콧 아너상’을 수상합니다. 아래는 『프레드릭』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마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레오 리오니, 『프레드릭』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와중, 프레드릭은 ‘색깔’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들은 생각지도 않은 겨울철 햇빛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색을 모으는 프레드릭의 행동을 ‘혁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게으름’이라고 여기시나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독서모임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그 모임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혁신’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독서모임 진행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에 많은 표를 줍니다.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게으름’에 표를 많이 줍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릴 때, 독서모임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의외로 갈등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같은 생각을 가진 참여자끼리는 나와 비슷하다는 ‘공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발견’의 기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독서모임의 유의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활용할 책은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입니다.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

는가?’라는 화두로 이 책을 썼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더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방의 양대 기구에 가입을 원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도 그렇거니와 러시아 군대나 친러시아 군대가 그들 나라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즉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노선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던 2013년 무렵, 모스크바가 이 문제에 유독 심하게 몰입했던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해 준다.

팀 마셜, 『지리의 힘』

몇 년 전, 위 발췌문을 바탕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해 전, 이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측합니다. 2013년에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

처하며 이번 침공을 예견했습니다. 러시아의 과잉 반응과 침공을 알면서도 나토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우크라이나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참여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정부의 나토 가입 추진은 자국 국방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의견.

둘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응은 무리하게 러시아를 자극했고, 지금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의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생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이는 가스를 대체할 전기난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며, 이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참여자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생명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독서모임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단순한 감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각을 거치며 마인드맵처럼 확

장됩니다. 혼자 읽었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것도 함께 이야기 하며 저절로 따라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독서모임의 유익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배우 최강희, 개그맨 송은이가 추천해서 널리 읽히고 있는 『마침내,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며칠 뒤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보일걸. 여기가 조금 빠른 거 같아. 얼마 전에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나란히 서 있는 벚나무가 예뻐서 한참 봤거든. 한 나무에는 꽃이 다 열렸는데 다른 한 그루에는 봉오리만 있는 거야. 한낮인데도 아파트 때문에 그쪽만 그늘이 길게 지더라고.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던 날 꽃잎이 다 떨어졌는데 비 그치고 나니까 그 나무 혼자 꽃을 피우더라.

유월, 『마침내, 안녕』

위 발췌문으로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주인공 도연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시재에게 위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어도 벚나무는 각기 다른 시기에 꽃이 핀다는 일상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조금 늦게 핀 순간’이 있었나요?”

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연결 상태인 ‘라포(Rapport)’를 형성하게 됩니다. 독서모임은 경험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줍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해한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죠.

이렇게 독서모임의 효능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즐거움**, **유익함**, 그리고 라포를 바탕으로 한 **연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모임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